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대학부

1

2014
January

창조주 하나님

1과 · 영원한 언약의 떡 레위기 24:5~9
2과 ·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1
3과 ·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2~4a
4과 · 완전한 창조의 결국 창세기 2:1~2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충현의 만나 대학부

1

2014
January

1월 대학부교재 초점

창조주 하나님

1과 · **영원한 언약의 떡** 레위기 24:5~9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영생의 떡이 되신다

2과 ·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1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3과 ·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2~4a
만물의 근원이 말씀에서 비롯되었다

4과 · **완전한 창조의 결국** 창세기 2:1~2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1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영원한 언약의 떡

초 점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영생의 떡이 되신다

본 문 레위기 24:5~9

[5]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열두 개를 굽되
각 덩이를 십분의 이 에바로 하여
[6]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7]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8]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9]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 후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 생활의 중심은 항상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성막 안에 두어야 할 물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진설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진설병에 대한 설명을 찾아 기록하세요.

· 진설병의 재료는 무엇입니까?(5절)

· 진설병은 몇 개를 만들어야 합니까?(5절)

· 언제 진설해야 합니까?(8절)

· 이것이 누구를 위한 언약이 된다고 말씀합니까?(8절)

· 실재적으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9절)

진설병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바친 떡이 함부로 버려지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동시에 제사장들의 기업의 일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떡을 매 안식일마다 항상 진설하라고 하신 것에는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언약의 상징물로서 두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진설병을 실제로 먹은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지만, 근본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 24:8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 □□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매 안식일마다 항상 떡을 진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참된 영생의 양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참된 양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 6:48 _____

요 6:33 하나님의 □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그 떡을 어떻게 먹을까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결코 주리지 않는 참된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요 6: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의 □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항상 진설할지니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항상 진설해야 했습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레 24:8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 진설할지니

진설병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절기마다 혹은 죄를 지을 때마다 수시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이유는 진설병과 모든 제사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실체되신 예수님이 오시고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진설병과 구약의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히 7:27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구약의 제물은 양이나 소와 같은 동물입니다. 그 피의 가치로는 절대로 인간의 죄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장차 영원한 속죄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십니다.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로 영원한 □□를 이루사 □□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분은 여러 번 고난 받거나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피는 온 세상을 구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히 9:26 _____

영원한 언약

진설병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어떠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까?

레 24:8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 □□이니라

'영원하다' 면 오늘날도 진설병을 드려야 합니까? 창세기 17:13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이 할례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 17: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 □□이 되려니와

할례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안상홍증인회)와 같은 이단에 속한 어리석은 자들은 할례나 안식일, 유월절 등등 많은 구약의 규례에 대하여 문자적인 영원성을 주장하면서 오늘날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의식은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의식의 영원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날이나 달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유월절 등과 같은 의식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골 2:16~17 _____

_____

_____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 참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더 이상 진설병을 성전에 두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성전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대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적 의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 의식의 영원성을 그리스도의 언약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이 구속의 사건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한 구속 협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행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죽으심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고전 11:24 _____

_____

고전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는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

❶ 참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❷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기고, 전하게 하소서.
❸ 충현교회 대학부가 십자가 복음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 하소서.

2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초 점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본 문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잡하고 뛰어난 기기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와 태양계만 보아도 그 아름다움과 질서는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아름다움과 조화와 질서 정연함을 생각할 때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 3:4 _____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는 그분의 솜씨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눈은 흐려졌고 희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초월자에 대한 어렴풋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롬 1:20 _____

_____

믿음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전재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논리적인 설명이나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임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히 11:3 □□으로 모든 □□가 하나님의 □□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세기 1:1을 확실히 믿는다면 성경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홍해를 가르지 못하시겠습니까? 성경의 기적 사건을 의심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 속에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바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시작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만물이 그분의 것이요, 더 나아가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더 이상 우주의 운행에 관여하시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 사실상 삶에서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행 17:24~25 □□와 그 가운데 있는 □□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에게 □□과 □□과 □□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이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높이 계시고 만유 위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시고 선택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 43: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을 위하여 □□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려고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깊고 원대한 구속 계획을 통해서 당신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를 경배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온 인류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십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계 1: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와 □□□라 □□도 있고 □에도 있었고 □□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제(현재)와 전(과거)과 장차(미래)에 계시며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물질이나 어떤 정신을 역사를 끌고 가는 원동력으로 보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또한 신자 각 개인의 삶을 지배하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알고 만날 수 있습니까? 각 종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전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죄인 된 인간이 참되고 유일하신 창조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유일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방법, 그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 14:6 _____

_____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의 주체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골 1:16 □□이 □에게서 □□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를 위하여 □□되었고

믿음의 기도

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❷ 역사의 시작과 끝이 주께 있음을 알고,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❸ 충현교회 대학부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소서.

3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초 점

만물의 근원이 말씀에서 비롯되었다

본 문 창세기 1:2~4a

[2]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근거로 인류의 역사를 계산하면 대략 6천 년에서 7천 년이 됩니다. 하지만 과학은 지구의 역사만 해도 45억 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질학자들은 지구의 수명을 약 45억 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탄소측정연대법을 통해서 대략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측정연대법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를 제시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백 번 양보해서 지구의 수명이 정말 45억 년이라고 해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성숙한 지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영아로 만드시지 않고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청년의 나이로 만드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우주와 지구와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상태로, 성숙한 상태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 1:31 _____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재료와 물질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 있음을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무의미한 혼돈의 상태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안에 하나님은 의도하셨던 것들을 채우시고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 1:3 하나님이 □□□□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 1:6~7 하나님이 □□□□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 되니라

'이르시되'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곧 이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하신 즉 이루십니다. 인간은 말을 해 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진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천사로부터 듣고 놀랐지만,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눅 1:38 _____

_____

모든 법칙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존재하는 모든 것들, 즉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일정한 법칙을 두셔서 사물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물리학을 통해서 그 법칙들을 조금씩 발견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여 발명품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창조적인 작업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물 가운데 법칙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와 운행 법칙과 사물의 원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욥 28:26 비 내리는 □□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을 만드셨음이라

욥 38:33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만물의 운행 법칙을 두셨지만, 그 법칙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법칙을 잠시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그 법칙을 거슬러 놀라운 표적을 보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에게 표적을 보여 주시기 위해 해를 10도 물러가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법칙을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수 10:12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이루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며,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이 측량할 수 없지만 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가운데 때를 따라 성취되고 있습니다.

전 3:11 하나님이 □□ 것을 지으시되 □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곧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 1:1~3 태초에 □□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과 함께 계셨고 □□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도 □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4 □□이 □□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미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요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과 □의 모든 □□를 내게 주셨으니

믿음의 기도

❶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❷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날마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
❸ 충현교회 대학부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4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완전한 창조의 결국

초 점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본 문 창세기 2:1~2

(1)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첫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날마다 창조된 것들을 써 보세요.

· 첫째 날 _____

· 둘째 날 _____

· 셋째 날 _____

· 넷째 날 _____

· 다섯째 날 _____

· 여섯째 날 _____

※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서로 나눠 보세요.

선하게 창조된 세계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모든 만물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선하심으로 그 만물 가운데는 그의 선하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관념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의 잣대'를 가지고 '선'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혹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은 그 만드신 피조 세계가 선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 1:3~4a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에 □□□□

창 1: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서는 본래 계획하셨던 대로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기에 이제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창 2:1~2 □□와 □□이 다 □□□□□□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하시니라

하나님이 육 일 동안 창조하시고 너무 피곤하여 꼭 쉼이 필요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 자신의 창조 결과에 대한 만족을 드러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매우 만족하시고 다 이루셨기에 일을 그만 두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어떤 분야에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프로젝트를 만족스럽게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쉬지 못합니다. 다 만족스럽게 행한 뒤에야 쉽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가지는 일차적 의미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만족을 표하신 것입니다.

창 1: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둘째, 하나님의 안식은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복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도 몸과 마음이 지치고 깊은 좌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창조의 사역이 복되고 거룩한 쉼을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되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창 2: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되게 하사 □□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하셨음이니라

셋째, 하나님의 안식은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 인간은 쉬지 않고 매일 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신체적 리듬을 가장 잘 아십니다. 6일 일하고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단순히 집에서 먹고 노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과 육의 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출 20:10 □□□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도 하지 말라

잃어버린 안식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안식하셨고,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과 모든 피조물 역시 그 안식에 동참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찾아 왔고, 모든 피조 세계도 고통 속에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는 참된 안식을 위한 구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롬 8:22 □□□이 다 이제까지 함께 □□하며 함께 □□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타락으로 인간은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제칠 일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임시적으로 안식을 영위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형이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 12:8 _____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성령을 따라 살 때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날에는 죄의 세력이 완벽하게 제거되어 영원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날마다 수고하는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십자가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마 11:28 _____

_____

믿음의 기도

❶ 하나님이 복되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소서.
❷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성령을 따라 누리며 경험하게 하소서.
❸ 충현교회 대학부가 날마다 성장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모 세

글 · 임동현 / 그림 · 김현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팀 조 이름:

충현의 만나 2014년 1월
Copyright© 2014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이기영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품]